

# 나주 혁신도시기관들, 사회적경제 활성화 돕는다

### 한전 '혁신성장' 지원, 한전KDN 경제 취약계층 '일자리 발굴단' 운영 KISA 지역 기업 전용플랫폼 구축... 우선 구매액 4억6000만원 늘려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지역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온라인 판로를 만들고, 교육 기회를 함께하는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국토교통부가 최근 내놓은 '2022년도 혁신도시 공공기관 사회적경제 지원 우수 사례집'에 담겼다.

나주 혁신도시 이전기관 가운데는 한국전력공사의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지원'과 한전KDN '광주·전남 사회적경제기업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교육 기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광주·전남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및 판로확대' 등 3건을 소개했다.

우선 인터넷진흥원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사회적경제기업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광주·전남 기업 전용 온라인플랫폼을 구축했다.

이 사업은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가치기움협동조합(광주), 전남상사사회적협동조합이 함께 했다.

인터넷진흥원은 지난해 7300만원, 올해 6400만원 등 총 1억3700만원의 자체 예산을 들였다.

인터넷진흥원의 전용 온라인플랫폼을 거쳐 간 지역 사회적경제기업과 기관은 60곳이 넘는다.

인터넷진흥원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유관

기관과 구매 협력망을 구축하고 사회적경제기업과 비대면 방식 '일대일 구매 상담회'를 열어 직접 매출 확대를 꾀했다.

구매 부서의 수요를 사전 조사하고 업체와 일대일 연계를 한 뒤 공공조달 상생협력 제품 계약을 성사시키는 방식이다.

지난해 광주·전남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구매 공고 때 대상을 100% 사회적기업으로 제한한 덕분에 우선 구매액은 2020년 29억9000만원에서 지난해 34억5000만원으로, 15.4%(4억6000만원) 늘었다.

지역 사회적경제기업과 미리 업무협약을 맺고, 진흥원 모든 직원에게 플랫폼 구매 교육을 하는 노력도 있었다. 현재 진흥원 사무용품은 모두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에는 사회적경제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임

치(任置) 제도를 12건을 지원하고, 협력사 직원 9명에 대해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성과를 거뒀다. 진흥원은 장기 재직을 유도한 협력사에 표창장과 포상을 주기도 했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지원'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했다.

한전은 2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전국 사회적경제기업 10개사와 협력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생산과 시제품 제작, 홍보비, 인건비 등을 위해 기업당 1000만원의 사업지원금을 주고 맞춤형 전문가 상담과 신규 투자 유치를 도왔다.

한전의 지원사업에 참여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지원 전보다 고객이 372% 증가했고, 평균 매출 증가는 167%에 달했다.

125억원 상당 신규 투자를 6건 유치했고, 특허 등록 3건, 업무협약(MOU) 5건 체결의 성과도 거뒀다.

그동안 한전은 네이버 해피빈과 협력해 '한전 전용 온라인 판매 기획전'을 열고, 해외 온라인플랫폼 입점을 지원했다. 올해는 온라인 제품 웹페이지 제작을 돕고 정보통신기술(ICT) 지원을 하며 기업들의 역량 강화에 힘을 보탰다. 앞으로 한전은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지도원을 할 예정이다.

한전KDN은 올해 6월부터 연말까지 사업비 3000만원을 들여 '광주·전남 사회적경제기업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교육 기부 사업'을 벌인다.

한전KDN은 광주 사회적가치 매칭데이에서 협약을 맺고 사회적기업이 운영하는 앱 '더하다'를 통해 경제활동 취약계층 채용 발굴을 위한 '일거리발굴단'을 운영했다. 한전KDN은 IT 교육공간 IT움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며 IT 교육 격차를 좁히는 노력을 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정승일(가운데)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최근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현장을 찾아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한전 제공>

## 정승일 한전 사장, UAE 바라카 원전 현장 점검

### 협력 확대 방안 논의도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현장에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6일 한전에 따르면 지난 4일 현장 시찰에 나선 정 사장은 상업운전 중인 바라카 원전 1·2호기를 비롯해 원자로 출력 100% 상승 시험을 수행 중인 3호기, 연료 장전 전 막바지 시운전에 들어간 4호

기를 모두 샅샅이 바라카 원전 3호기는 내년 중 상업운전을 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2호기가 상업운전에 들어간 이후 1년 만이다.

정 사장은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 모하메드 알 하마디 UAE원자력공사 사장을 만나 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정 사장은 "마지막 4호기까지 성공적으로 프로젝트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역량을 총결집할 것"이

라며 "UAE 원전사업을 발판삼아 영국, 튀르키예,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 등 해외 원전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 관계자는 "UAE 원전 사업의 성공적인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발주국들의 관심 사항을 반영한 최적화된 수주 활동을 벌이겠다"며 "정부의 '원전 10기 수출'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국가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농어촌공사, 사내 벤처팀 2팀 선발

### 해외투자 프로젝트 추진 등 제안

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 제4기 KRC 사내벤처팀 선발 IR(기업설명) 대회를 열고 K-아그로(Agro)팀과 어벤져스팀을 선발했다고 6일 밝혔다.

K-아그로팀은 공사와 민간기업, 다자 은행 등이 협업해 해외농업 투자 플랫폼과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으로 재원을 확보한 뒤 투자와 회수 중심의 농업 분야 해외투자 프로젝트 추진을 제안했다.

어벤져스팀은 공사가 보유한 사육과 양·배수장 등의 유휴부지에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설립하는 등 분산형 전원 활용과 열원 임대 등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제시했다.

공사는 이들 사내 벤처팀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업무 공간과 부대시설 및 장비

사용, 창업 관련 교육, 사업 자금 지원 등을 할 계획이다.

공사는 지난 2019년부터 사내 벤처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첫해에는 염지하수를 활용한 스마트 양식단지 조성사업이 선정됐다.

2020년 선정된 상생형 온실가스 감축 사업은 농·어가 11곳에서 연평균 800만원의 부가 소득을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사업화가 이뤄졌다.

지난해는 마이크로 소수력 수차 모델 개발과 소수력 지구 위탁 운영사업이 채택됐다.

이병호 공사 사장은 "공사는 농어촌 관련 창업 생태계 조성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임직원의 참신한 아이디어는 농어촌 혁신 성장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한전KDN, 공감채용 역량면접 훈련 진행

### 고교생·경력단절 여성 등 21명

한전KDN '체험형 인턴십' 과정을 밟은 광주·전남 고교생 17명과 경력단절 여성 4명이 면접 훈련을 받았다.

한전KDN은 최근 체험형 인턴 21명을 대상으로 '공감채용 역량면접'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인턴십에는 광주·전남지역 직업계 고교생 21명과 경력단절 여성 4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3개월 동안 한전KDN 직무를 익히는 '체험형 인턴십'을 받은 뒤 이번 면접 훈련을 했다.

전문가가 일대일 면담을 통해 지원자의 면접 역량을 평가하고 강·약점을 분석하고 상담을 했다.

이어 개인별 15분 모의 면접을 벌이고 자기 평가, 역량 평가를 했다.

한전KDN은 모의 면접을 통해 체험형 인턴십에 참여한 고교생과 지역민이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이번 훈련을 기획했다.

한전KDN 관계자는 "최근 기업들이 면접 단계에서 직무수행 능력, 즉 역량 평가를 강화하는 추세"라며 "인턴을 대상으로 면접 상담 기회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h1>토지 매매 (담양)(장성)</h1>		<h2>경매교육 [특수 전문반]</h2> <small>기초반, 중급반</small>
<p>▶ <b>담양 프로방스 앞 (7,500평)</b></p> <p>■ <b>임야 : 7,500평</b></p> <p>■ <b>1차 허가 완료, 개발토지, 최고 위치</b></p>		<p><b>* 특수 전문반 모집 (10명)</b></p> <p>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2) 중급반 (실전부터 ~ ) 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 )</p>
<p>① 담양 창평면 - 9,000평 ( 계획관리)</p> <p>② 담양 무정면 - 1,200평 (1중주거지역)</p> <p>③ 장성읍 상오리 (장성댐) 전원주택 (150평)</p> <p>④ 장성읍 야은리 (황룡강면 ) 전원주택지 (200평)</p> <p>⑤ 장성읍 야은리 전원주택 2층 - 2억3천</p>		▶ <b>경매 물건 추천</b> ◀
		<p>서구중앙동 (상가주택) ▶ 감정가 6억5천 → 최저가 4억6천</p> <p>광산구 수완동(운솔의아침) ▶ 감정가 6억3,300 → 최저가 3억5천</p> <p>북구 삼각동 (어린이집) ▶ 감정가 7억1,100 → 최저가 3억2천</p> <p>북구 신안동 (공장) ▶ 감정가 13억 → 최저가9억2천</p> <p>광산구 하남동 (공장) ▶ 감정가 36억4,500 → 최저가16억</p> <p>광산구 우산동 (근린상가) ▶ 감정가 5억 → 최저가 2억8천</p> <p>영암군 심호읍 (숙박시설) ▶ 감정가 20억 → 최저가 7억</p> <p>장성읍 안평리 (농지)▶ 감정가 17억 → 최저가 12억</p>
<h1>010-6670-9800</h1>		<h1>010-2614-9801</h1>